

팩트체크 + 보고서		 The Media Network for Justice
특별판	발행일: 2020년 3월 9일(월)	
연락처	(02) 741-7662	www.medianetwork.kr FAX (02) 741-7663
에디터	황우섭 (E-mail : mirifica@naver.com)	

2020 총선 방송보도 분석④

- 분석대상 : 9개 방송사 TV 메인뉴스 / 분석기간 : 3.1~3.7 -

요 약 문

3월 1일(일)부터 3월 7일(토)까지 9개 방송사 TV 메인뉴스에서 보도된 각 정당 공천, 박근혜 전 대통령 편지 관련 뉴스 총 58건을 분석한 결과 정당 공천이 27건 박근혜 전 대통령 편지가 31건으로 나타났다.

정당 공천 관련 기사의 경우 주로 미래통합당의 공천 관련 내용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공격과 피격 프레임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편지, 미래통합당과 자유공화당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기사를 통해 각 정당들이 재현되는 방식, 방송사별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관련 내용의 경우 치열한 경선의 결과로 묘사되고 별다른 해석 없이 경선 결과를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었으나, 미래통합당 관련 내용의 경우 갈바람, 피바람 등의 거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당의 일방적인 결정과 탈락 후보들의 반발, 공천 후유증과 같은 부정적 이슈들이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 관련 이슈의 경우 편지의 주요 주제인 미래통합당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었으며 이슈의 특성 상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모두 공격 프레임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공격의 성격은 차이를 보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 발표 자체를 정치행위로 바라보며 이의 부적절성을 부각하는 방식과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판이, 정의당의 경우 편지의 부적절성 비판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이 주를 이루었으나, 미래통합당의 경우 편지 내용을 인용하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두 정당이 재현되는 주요 내용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부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며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미래통합당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

요 약 문

하고 있었다.

반면 전략적 차원에서는 보수 지지층 결집, 중도층 표심, 지지층 결집 등에서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특히 두 정당 모두 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략적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으나 보수결집, 중도층 표심에 대해서는 정 반대의 전략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는 지상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비판적인 입장들은 별다른 해석 없이 보도되었으나 미래통합당과 자유공화당의 경우 당혹감, 두 정당 간 갈등, 당 내 우려 등 부정적인 이슈들로 구성되고 있었다.

종편채널의 경우 채널A, MBN은 적극적으로 해당 이슈를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JTBC는 해석과 함께 시종일관 박 전 대통령의 편지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논란 유발, 옥중 정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발언을 비판하는 당시 새누리당 언급, 수사와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대통령의 여론전 등으로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1. 개요

본 총선 방송보도 분석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방송뉴스를 중심으로 총선 관련 뉴스를 분석하여 총선 관련 방송보도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분석대상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 등 9개 방송사 TV 메인뉴스의 총선 관련 기사이다. 보도전문 채널의 경우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메인뉴스가 동일한 시간대에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의 기사가 홈페이지, 포털 등에 정리되어 있지 않아 포털(네이버)에 각 방송사 메인뉴스와 함께 게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분석기간은 3월 1일(일)부터 3월 7일(토)까지 일주일 동안 각 방송사 TV 메인뉴스에서 보도된 각 정당의 공천 관련 기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 관련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관련 기사는 총 58건으로 집계되었다.

[표 1] 방송사 별 기사 건수

방송사		건 수	비중
지상파	KBS	3	5.2%
	MBC	5	8.6%
	SBS	4	6.9%
보도전문	연합뉴스TV	3	5.2%
	YTN	8	13.8%
종합편성	TV조선	8	13.8%
	JTBC	14	24.1%
	채널A	3	5.2%
	MBN	10	17.2%
합계		58	100.0

[표 2] 주요 이슈별 기사 건 수

	N	비중
정당 공천	27	46.6%
박 전대통령 편지	31	53.4%

2. 정당 공천

1) 기사 내 정당 언급 수

정당 공천 관련 기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언급된 기사는 10건에 불과했으나, 미래통합당의 경우 26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공천 관련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 반응, 공천이 확정된 지역구의 대결구도가 중심이 되고 있었으며 특히 미래통합당 관련 기사의 경우 공천 탈락 후보들의 반발 관련 내용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정당 별 기사 내 언급 수

	N	Percent
더불어민주당	10	26.3%
미래통합당	26	68.4%
기타	2	5.2%
합계	38	100.0%

2) 주요 프레임

주요 프레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사들이 공천 탈락 및 지역구 공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로 이루어져 있어 두드러지는 프레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관련 기사에서 공격과 피격 프레임의 경우 주로 자유공화당과의 관계와 관련된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미래통합당과 자유공화당 간 공천 관련 지분 갈등, 더불어민주당의 비판 등의 내용으로 나타났다.

[표 4] 정당별 주요 프레임

	공격	피격	무프레임	합계
더불어민주당	2	0	21	12
미래통합당	3	1	33	25
정의당	2	0	1	1
기타	1	1	0	1
합계	3	1	35	27

3) 심층 분석

정당 공천 관련 기사들은 대부분 미래통합당의 공천 결과를 다루고 있었으며 특히 공천관리위원회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던 홍준표, 김태호 두 후보자의 탈락을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었다. 또한 미래통합당의 주요 기반인 TK 지역의 대폭적인 교

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방송사들이 다루는 공천 관련 내용과 표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공천 기사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p>치열한 경선 경선 결과 이의제기</p>	<p>물갈이, 칼바람, 공천배제 친박실세 컷오프 홍준표, 김태호 오세훈 선거법 위반 탈락인사 반발, 후유증, 후폭풍, 공천 잡음 박근혜 전 대통령</p>
대진표, 격전지, 대항마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련 기사의 경우 단독으로 다루기보다 미래통합당 관련 기사와 함께 등장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단순 지역별 경선 결과를 다루거나 일부 이의 제기사례를 다루고 있었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공천 관련 기사는 물갈이, 칼바람과 같이 표현하고 있었다. 공천 과정 자체가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결과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더불어민주당 공천 결과가 ‘경쟁을 통한 결과’의 의미가 큰 반면 미래통합당의 공천 결과는 ‘당의 일방적 결정’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친박 실세 컷오프, 홍준표, 김태호 두 후보 등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의 반발 관련 내용으로 이어지며 미래통합당 내 갈등을 부각하는 효과를 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TV조선과 JTBC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공천 결과 발표 후 선거에 미칠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반발, 후유증, 후폭풍, 잡음과 같이 당 내 갈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도 TV조선과 MBN을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공천과 관련 짓고 있었고, TV조선의 경우 유명하 변호사를 중심으로 미래통합당의 인적쇄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MBN의 경우 태극기 세력과의 공천지분을 둘러싼 내분을 우려하는 등 서로 다른 예측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공천 관련 기사 내용의 경우 언론사별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지상파의 경우 민주당 공천결과를 거의 다루지 않는 반면 YTN, TV조선, JTBC, MBN 등 방송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결과와 함께 동일 선거구의 미래통합당 공천 결과를 결합해 대결구도 중심의 보도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표 6] 언론사별 공천 관련 기사의 주요 내용

언론사	주요내용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락 인사 반발 ▪ 홍준표, 김태호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락인사 반발 ▪ 홍준표, 김태호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 칼바람 ▪ 현역 60% 교체 ▪ 홍준표, 김태호, 박찬주(갑질논란)
연합뉴스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한국당의 공천 의도 ▪ 후유증
YT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비린내, 단호 ▪ 후폭풍, 반발 ▪ 더불어민주당 민병두(미투) ▪ 오세훈 선거법 위반 ▪ 격전지 대진표 ▪ 유명하 변호사
TV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갈이 ▪ 김부겸 대항마 ▪ 민주당 공천 결과 ▪ 유명하 변호사와 박 전대통령 관계, 통합에 힘신는 결과 될 것 ▪ 격전지 대진표
JT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진표 ▪ 홍준표(공천 발표 전 추가 공천 신청)
채널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갈이 ▪ 미래통합당 낮은 교체 비율
MB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박실세 컷오프 ▪ 홍준표, 김태호, 이주영 반발 ▪ 공천 잡음 ▪ 박 전대통령 옥중서신과 공천 지분 내분 우려 ▪ '태극기세력' 통합 ▪ 더불어 민주당 경선 결과

방송사 공천 관련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미래통합당이 주요지지 기반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의원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킨 상황으로 인해 미래통합당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지라도 14개 이상 지역구의 공천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건조하게 결과만을 전달하거나 일부 탈락자의 반발을 작게 다루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을 다루는 내용의 경우 칼바람, 피바람 등의 거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공천 결과보다 이로 인한 갈등과 내분을 더욱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2.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편지

1) 기사 내 언급 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에 대한 기사에서 주요 정당의 언급 횟수는 더불어민주당 17회, 미래통합당 29회로 미래통합당이 가장 많았다. 이는 편지의 주요 내용이 미래통합당 중심의 보수 결집 요청으로 미래통합당이 편지 내용의 주된 주체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대부분 편지 내용이나 발표 시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으며 미래통합당의 경우 대부분 이를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결집을 우려하거나 미래통합당 내 중도층 이탈 우려와 관련된 내용들도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정당 별 기사 내 언급 수

	N	Percent
더불어민주당	17	32.1%
미래통합당	29	54.7%
정의당	7	13.2%
합계	53	100.0%

2) 주요 프레임

정당별 주요 프레임의 경우 공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 발표 자체를 정치행위로 바라보며 이의 부적절성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공격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다. 정의당의 경우 편지의 부적절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며 주된 공격의 주체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경우 편지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를 활용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공격 프레임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편지를 둘러싼 전략적인 고민들도 기사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나 그 자체로 공격이나 방어, 주장 등의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정당별 주요 프레임

	방어	공격	피격	무프레임	합계
더불어민주당	1	17	2	18	16
미래통합당	2	22	3	31	29
국민의당	0	1	0	2	1
정의당	1	13	0	5	8
기타	0	5	1	9	5
합계	2	23	3	31	31

3) 심층 분석

기사에서 나타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평가와 전략적 고민은 명확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탄핵을 부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며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미래통합당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반면 전략적 차원에서는 단순한 평가 외에 다른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보수 지지층 결집, 중도층 표심, 지지층 결집 등에서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특히 두 정당 모두 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략적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으나 보수결집, 중도층 표심에 대해서는 정 반대의 전략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표 9] 박 전 대통령 편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관련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중 선동, 선거개입, 국민분열 ▪ 도로 새누리당 ▪ 탄핵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영, 애국적 진심 ▪ 보수 통합 ▪ 박 전 대통령 석방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 결집 우려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결집 계기 ▪ 중도층 표심 잡을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 지지층 결집 ▪ 중도층 표심 이탈 우려 ▪ 자유공화당 지분 선긋기

이를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미래통합당, 자유공화당의 논평이나 입장, 취재원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각 정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기사를 중심으로 이슈를 구성하고 있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비판적인 입장은 별다른 해석 없이 그대로 보도하고 있었으나 미래통합당과 자유공화당의 경우 예상과 다른 내용으로 인한 당혹감, 공천을 둘러싼 자유공화당의 요구와 미래통합당의 선긋기, 당 내 우려 등 부정적인 사안들도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반면 JTBC, 채널A, MBN의 경우 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당 이슈를 해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JTBC의 경우 시종일관 박 전 대통령의 편지 발표에 대해 비판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논란유발, 옥중 정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발언을 비판하는 당시 새누리당 언급, 수사와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대통령의 여론전 등으로 이를 언급하고 있었다.

채널A의 경우 각 정당의 입장보다 박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이를 태극기 세력의 미래통합당 흡수 통합 가능성과 보수층 결집의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와 연결해 이번 총선을 친문 vs 반문 구도로 프레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MBN의 경우 편지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은 다른 방송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의당의 고발에 대해 전문가의 입을 빌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으며 박 전 대통령의 편지 발표에 대해 보수 분열을 막기 위한 행보로 해석하기도 했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 편지 발표 이슈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 개별 정당들의 논평이나 평가의 단순 전달로 보일 수 있으나 방송사들의 경우 각 정당의 전략적인 판단, 특히 미래통합당의 전략적인 판단을 부각하고 있었으며 이슈 자체에 대해서도 방송사별로 각기 다른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이슈에 대한 비판적인 해석뿐 아니라 친문 vs 반문과 같은 이슈와 연결되는 선거 자체에 대한 프레임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10] 방송사별 정당별 입장과 이슈에 대한 해석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미래통합당, 자유공화당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중 선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영, 석방요구 자유 공화당 후보 단일화 등 요구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집결, 탄핵 대통령 정치개입 부정적 영향 등 엇갈린 분석 선거개입 검찰 고발 도로 새누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혹(태극기 세력 움직임) 제각각인 의미 해석 태극기 세력 당혹 득실 계산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찰 고발 논란 파렴치, 선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천작업 중단 요구(자유공화당) 유영하 변호사 미래 한국당 입당 환영, 큰 결단
연합뉴스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중 선동, 비판 당혹, 결집 계기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색 뭉치는 계기 그러나 도로 새누리당 우려
YT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악의 옥중 정치, 총선 개입 검찰 고발 과거 회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가운 선물
TV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선 개입 선언 범보수 단일화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 통합 선거의 여왕, 이번 선거의 변수
JT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핵 부정, 정치선동, 국민 분열 중도층 표심 잡을 기회 불리한 일만은 아니라는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영, 애국적 진심 미래통합당 공천 중단 요구 중도층 이탈 우려 총선 판세 영향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통합당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비판 보수와 스스로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상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미래통합당, 자유공화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위기상황 속 논란 유발 ▪ 국민 알권리 외면했던 전 대통령의 여론전 ▪ 선관위 선거법 위반 검토 ▪ 코로나19 사태 정치적 이용, 옥중 정치 	
채널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동 정치 비판 ▪ 도로 새누리당 ▪ 탄핵 결정 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통합당 환영 ▪ 자유공화당 지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재인 정부 무능 비판 ▪ 미래통합당 비판하면서도 미래통합 중심으로 뭉쳐달라 주문 ▪ 태극기 세력의 미래통합당 흡수 통합 가능성, 보수층 이탈 막는 호재 ▪ 총선의 친문, 반문 구도 뚜렷 	
MB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도 높은 비판 ▪ 최악의 정치 재개, 도로 새누리당 ▪ 내심 반기는 분위기 ▪ 중도층 표심 부정적 영향 ▪ 비례연합 정당 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영 입장 ▪ 중도 표심 이탈 우려 ▪ 도로 새누리당 우려 목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당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범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보수 분열을 막기 위한 행보로 풀이 	

끝.

※참고 : 이 보고서는 미디어연대의 분석자료입니다. 자유롭게 활용하시되, 인용시 '미디어연대 자료'임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황우섭 에디터의 책임 하에 분석된 내용으로 미디어연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후원 : 저희 미디어연대와 함께 해주십시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는 미디어연대 <팩트체크+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후원은 미디어연대 홈페이지 (www.medianetwork.kr)에서 '후원하기'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